

# 울란바토르 시장, 40조 투그릭 지원 요청

## 울란바토르 시장, "40조 투그릭 지원 시 대기오염과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몽골 울란바토르 시장 H.남바타르가 정부에 40조 투그릭을 지원해주면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L.오윤-에르덴 총리는 H.남바타르 시장의 요청을 수용해, 해당 재원의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을 울란바토르 발전을 지원하는 해로 선포"하는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40조 투그릭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D.솜야바자르 전 시장 재임 당시 울란바토르는 추가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그는 중앙정부로부터 420억 투그릭을 추가로 지원받아 도시의 재정을 크게 늘렸으며, 당시 충분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점을 강조했다.

현 시장인 H.남바타르는 취임 후 지하철 및 주택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며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500억 투그릭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1만 2천 세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영국 정부로부터 15년 상환 조건으로 30억 파운드(약 5조 투그릭) 대출을 유치해 지하철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이 대출에는 몽골 정부가 보증을 제공했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H.남바타르 시장이 요청한 40조 투그릭 지원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 외국인 노동자 ,

## 쿼터 및 오해에 대한 입장 발표

L.엔흐-암갈란: 몽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쿼터 없이 수용하거나, 28만8천 명의 중국인을 수용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몽골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인 L.엔흐-암갈란은 12월 20일 국회 의장에게 '노동력 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뒤 오늘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법안의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을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쿼터 없이 몽골에 들여오거나 28만 8천 명의 중국인을 유입시키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안은 L.엔흐-암갈란 개인의 법이 아니며, 연립정부 모든 장관이 동의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법안의 주요 내용:

####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비용 부담 완화:

특히 소규모 및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작업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대기업이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비용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쿼터 제도 유지

외국인 노동자의 쿼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가 매년 책정한다. 따라서 쿼터 제도를

**외국인 노동자 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관료주의적 문제를 제거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활용 방안을 포함한다.

**특정 산업 지원:**

광물 및 석유 산업 외의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작업비용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몽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법안"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